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美 민주당 · 공화당, 코로나 19 부양책 앞 의견차
- ◇ (칼럼)-지준일에 나온 한은의 긴급 자금지원..왜 하루 전날 10 조원 흡수했나
- ◇ (초점)-한은 외화대출 입찰 연속 미달..은행권 '장기 운용 한계·LCR 부담'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뉴욕 하트아일랜드에 시신을 매장하는 모습이 드론에 포착됐다. 이 섬은 지난 19세기 이후 유족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매장하는 장소로 이용돼 왔다. (로이터/루카스 잭슨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10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08.8	1.8%	-4.3%	-3.5%	유로	1.0935	1.2%	-2.5%	-2.3%
100엔 대비	1,116.6	2.0%	-4.9%	-4.4%	엔	108.46	0.0%	0.1%	0.9%
유로 대비	1,324.2	0.9%	-2.3%	-1.3%	위안	7.0440	0.5%	-1.1%	-1.3%
위안 대비	172.02	1.2%	-3.7%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3,719.37	12.7%	-16.9%	22.3%
코스피	1,860.70	7.8%	-15.3%	7.7%	나스닥	8,153.58	10.6%	-9.1%	35.2%
코스닥	611.26	6.7%	-8.7%	-0.9%	S&P500	2,789.82	12.1%	-13.6%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455.94	6.5%	-17.5%	15.8%
국고채 3Y	0.970%	-9.6bp	-39.0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94%	-13.5bp	-28.6bp	-40.4bp	미국채 2Y	0.231%	0.5bp	-133.0bp	-93.7bp
국고채10Y	1.444%	-10.4bp	-23.9bp	-26.5bp	미국채 10Y	0.729%	12.9bp	-118.1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22.76	-19.7%	-62.7%	34.5%	한국 5Y	26.2bp	-14.8bp	5.1bp	-17.0bp
금(현물)	1,688.90	4.5%	11.3%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191.64	1.0%	-11.8%	4.8%	중국 5Y	37.3bp	-22.4bp	6.7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13일(월)>

- 특이 일정 없음

<14일(화)>

- 한은, 3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한은, 3.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21:30)

<15일(수)>

- 임시공휴일(국회의원 선거일)

<16일(목)>

-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결과
- 기재부,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KDI, 경제동향 4월호(12:00)

<17일(금)>

- 통계청, 3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 기재부,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 기재부, 4월 최근경제동향(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13일(월)>

- 영국, 독일, 홍콩 휴장

<14일(화)>

- 미국, 3월 수출입물가 (21:30)
- 중국, 3월 수출입 (미정)
- 캐나다중앙은행(BOC) 금리발표(23:00)

<15일(수)>

- 연준 베이지북 발간(3: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4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3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3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2월 기업재고 (23:00)
- 미국, 2월 소매재고 수정치 (23:00)
- 미국,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16일(목)>

- 일본, 4월 로이터 단칸 (8:00)
- 중국, 3월 주택가격 (10:30)
- 유로존, 2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3월 건축허가 (21:30)
- 미국, 3월 주택착공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4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21:30)

<17일(금)>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은행(WB) 춘계 화상 회의(~19일)
- 중국, 3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3월 산업생산 (11:00)
- 중국, 3월 소매판매 (11:00)
- 중국, 1분기 GDP (11:00)
- 일본, 2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2월 건축생산 (18:00)
- 미국, 3월 경기선행지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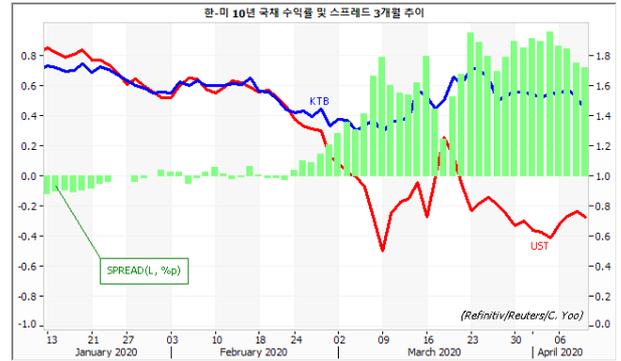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사태의 전개에 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띠기보다는 여전히 잦은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00-1235 원이다.
- 코로나 19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조만간 변곡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커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막연한 코로나 19 공포에서는 조금씩 빠져나오는 모양새다.
-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극심한 경기 침체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 나올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가 주목된다.
- 미국의 3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그리고 중국의 3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수출입, 1분기 경제성장률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 이번 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상장기업들의 배당 지급이 몰려 있어 외인 배당 몫을 고려하면 최대 약 2.6조원 규모의 역송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확연히 달러 수요 우위의 장세가 전개될 전망이다.
- 물론 이같은 수급이 환율 추세를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달러/원 하단은 막아설 만큼의 영향력은 있다.
-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심리가 일방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급 변수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19가 야기하는 변동성 장세 속에 수급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환율 보폭이 거칠어지는 한 주가 예상된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글로벌 코로나 19 확산 흐름, 코스피지수 움직임 등과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보여준 스탠스가 연일 화제다. 시장금리 안정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 최근 국고채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시장안정용 단순매입을 발표한 것은 예상을 깨는 행보였다.
- 물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발표된 후 채권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것에 대비한 예방조치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선 한은이 보는 적정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기도 했다. 비지표물 위주로 단순매입 대상 증권을 고른 건 국고채전문딜러(PD)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듯하다.
- 어쨌든 수급 우려로 채권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셈이다. 이는 시장의 매수심리를 전반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코로나 19가 반영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떻게 변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 통계청은 17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 19가 국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이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최근경제동향 4월호를 발간한다.

美 민주당·공화당, 코로나 19 부양책 앞 의견차

워싱턴 (로이터) - 미국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병원과 지방정부를 위해서도 비슷한 액수가 지원되어야만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주장하며 2500억 달러 규모의 소기업들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총 5000억 달러 이상의 중간 지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서 멀어지며, 패스트트랙에 따라 의회의 만장일치 지지가 요구되는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워지고 있다.

미치 매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8일 늦게 트윗을 통해 "여러 우선사항에 5000억 달러를 배분하는 또다른 무질서한 법안이 이번주에 만장일치로 상원이나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원조를 위한 공화당의 2500억 달러 규모 부양책 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미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조 300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게 그가 요구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 대해 주말까지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소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 이상의 법안을 지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역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병원,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해 2500억 달러를 더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의 척 그래스리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에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 호텔과 식당 지원

기본적인 대출 요건이 충족되면 양여금으로 전환되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소기업 대출은 지난 3일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3490억 달러에 이어 제공될 것이다.

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확산 억제를 위한 섀도우펀드로 피해를 입은 호텔과 식당 및 다른 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셴 케네디 전미 레스토랑 협회 부회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거의 15%에 달하는 식당들이 미국에서의 코로나 19 확산 이후 폐업했거나 앞으로 2주 이내에 폐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디 부회장은 더 융통성 있는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재무부에 로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위해 별도의 전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원의 민주당 소식통은 므누신 총리가 현재까지 980억 달러 이상의 소기업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워싱턴에 있지 않으며, 상하원의 정기 업무는 적어도 현재의 휴회가 끝나는 20일까지 보류되어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42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에서 구두 투표를 통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거나, 가능하다면 의회를 소집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3월 27일의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 법안에 이어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펠로시와 슈머는 2500억 달러 규모 소기업 지원금의 절반은 소수자, 여성 및 참전용사가 소유한 기업 및 농민과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은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법안은 병원과 기타 의료시설을 위한 1,000억 달러, 미국 주와 지방 정부를 위한 1,500억 달러, 그리고 영양 프로그램 확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럼)-지준일에 나온 한은의 긴급 자금지원..왜 하루 전날 10조원 흡수했나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10분간 RP 1일물을 0.75%에 매입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지준 마감일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RP 매입이었다. 1조원이 응찰해 전액 낙찰을 받았다.

은행이 한은 자금조정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RP 매입으로 구제의 손길을 내민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특수 시점이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넉넉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만 해도 여러 번이다.

그런데 지준 마감일에 일부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일부 은행 자금 담당자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 그건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렇게 되니 하루 전인 7일 진행된 통화안정예치금 경쟁입찰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안계정 입찰은 통상적으로 화요일에 이뤄진다. 하지만 지준 마감일 직전엔 한은의 판단에 따라 입찰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한은은 선택을 내렸다. 이날 한은은 10조원 규모로 통안계정 입찰을 진행했다. 적수를 감안할 때 지준 마감일까지 20조원을 시중에서 회수한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로 자금을 회수해 놓고 불과 하루 만에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는 점이다.

시중 자금판을 손바닥 보듯 하고 있는 한은이 왜 이런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인 걸까?

한은 입장에서선 은행의 입장을 너무 많이 봐주다 스텝이 꼬인 것일 수 있다.

대규모 자금 공급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한은이 10조원 규모의 통안계정 입찰을 감행한 것도 결국 은행의 지준 운용을 최대한 고려한 안배라고 봐도 될 것이다.

하지만 지준 마감일 일부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 시국에 대한 한은의 다소 나이브한 상황 인식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단기자금시장 사정이 조금 풀렸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다. 현재 한은의 모든 정책 초점은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이 파급되는 속도를 키우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 때문에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을 하는 것이고 전례를 깨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에 차액결제 담보 증권(비율 20%p) 인하도 발표한 것일 테다.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은 자금조정예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만큼 머니마켓 펀드(MMF)로의 자금 집행이 늘어나고 시장에 돈이 돌게 된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돈이 몰려들면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기관 운용역들의 태도도 달라진다. '한번 사볼까?' 하면서 우량한 물건부터 조금씩 매수세가 붙고 시간이 지나면 매수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뻗쳐 나가는 것이다.

지금은 지준 운용이 어렵다는 은행 자금부의 소리에 한은이 일일이 맞대응해줄 필요는 없는 시점이다.

한은이 좀 더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공개시장 운영을 해 나갈 때 시장 안정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초점)-한은 외화대출 입찰 연속 미달..은행권 '장기 운용 한계·LCR 부담'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 준비제도(연준)와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해 진행한 두 차례 외화대출 경쟁입찰에서 응찰액이 모두 한도액을 크게 미달했다.

은행권의 달러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지만, 단기 자금 운용의 한계,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외화대출, 두 차례 연속 미달..달러 수급 개선

한은은 이날 최대 85 억달러 규모로 진행한 외화대출 입찰에 44 억 1500 만달러어치가 응찰해 전액 낙찰됐다고 밝혔다.

70 억달러로 예정됐던 84 일물 입찰에는 41 억 4000 만달러가 응찰했고, 15 억달러로 예정됐던 8 일물 입찰에는 2 억 7500 만달러가 응찰했다. 금융기관의 달러 수요가 모집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지난달 31 일 실시했던 1 차 외화대출 입찰에서도 공급 한도액은 120 억달러였지만 응찰액은 87 억 2 천만달러에 그친 바 있다.

한은은 시장의 달러 수요를 모니터링한 후 그보다 다소 여유 있게 공급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응찰액이 모집 한도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시중 달러 유동성 상황이 그만큼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외화대출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외화대출 입찰에 국내 은행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도 골고루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은행들, LCR 너무 좋아져도 부담..담보 부담도 작용

은행권에선 한-미 통화스왑 전에도 이미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없던 데다 외화대출을 통해 조달한 달러의 운용이 마땅치 않아 입찰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외화대출 만기가 짧은 만큼 장기 대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 지난 첫 번째 외화대출 입찰 전후로는 FX 스왑 3 개월 이내 테너로만 비드가 집중되기도 했다. 비드가 공백을 보인 코스 1 년 테너 금리가 첫 번째 외화대출 입찰 당일 급락한 이유다.

하지만 최근 단기 FX 스왑 포인트가 크게 반등하면서 단기 운용마저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 LCR 악화 역시 은행들의 외화대출 입찰 수요를 줄이는 요인 중 하나다. 은행들이 달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한은에 제시해야 한다. 같은 고유동성 자산이라 해도 대출받는 달러 대비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한은에 제공할 경우 은행의 통합 LCR 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A 은행 자금부장은 "은행 입장에서선 보유한 달러를 대출자산에 매칭해야 마진이 높을 텐데 한은이 공급하는 자금은 운용을 짧게 가져가야 해 한계가 있다"며 "한은 외화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통합 LCR 이 떨어지는 부분도 걸리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외화 LCR 비율이 과도하게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자금 담당자들도 있다. 대부분 국내 은행에서 외화 LCR 비율이 이미 100%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자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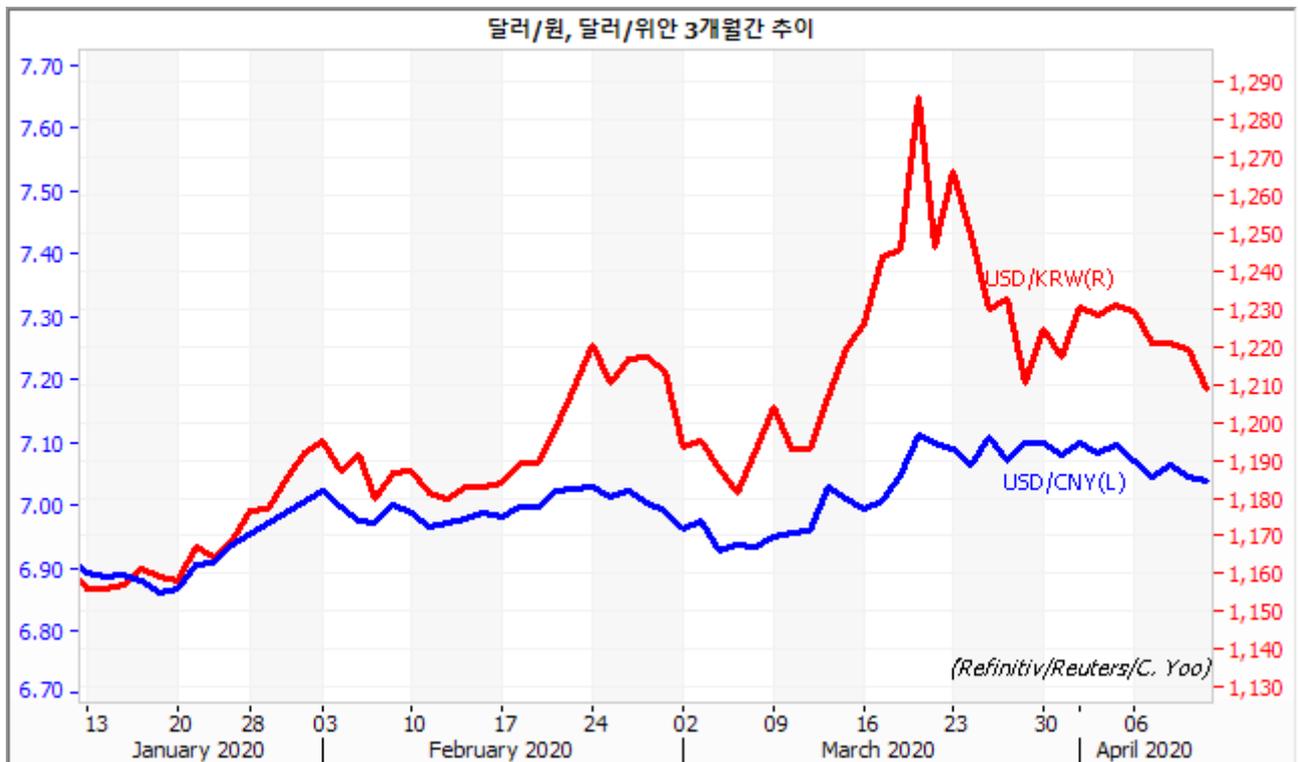
은행권의 달러 수급이 절대 나쁘지 않다는 의미다.

B 은행 자금팀장은 "은행 입장에서선 LCR 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LCR 비율이 너무 높으면 과잉유동성으로 잡히고 쓸데없이 차입을 많이 해서 은행 순이자마진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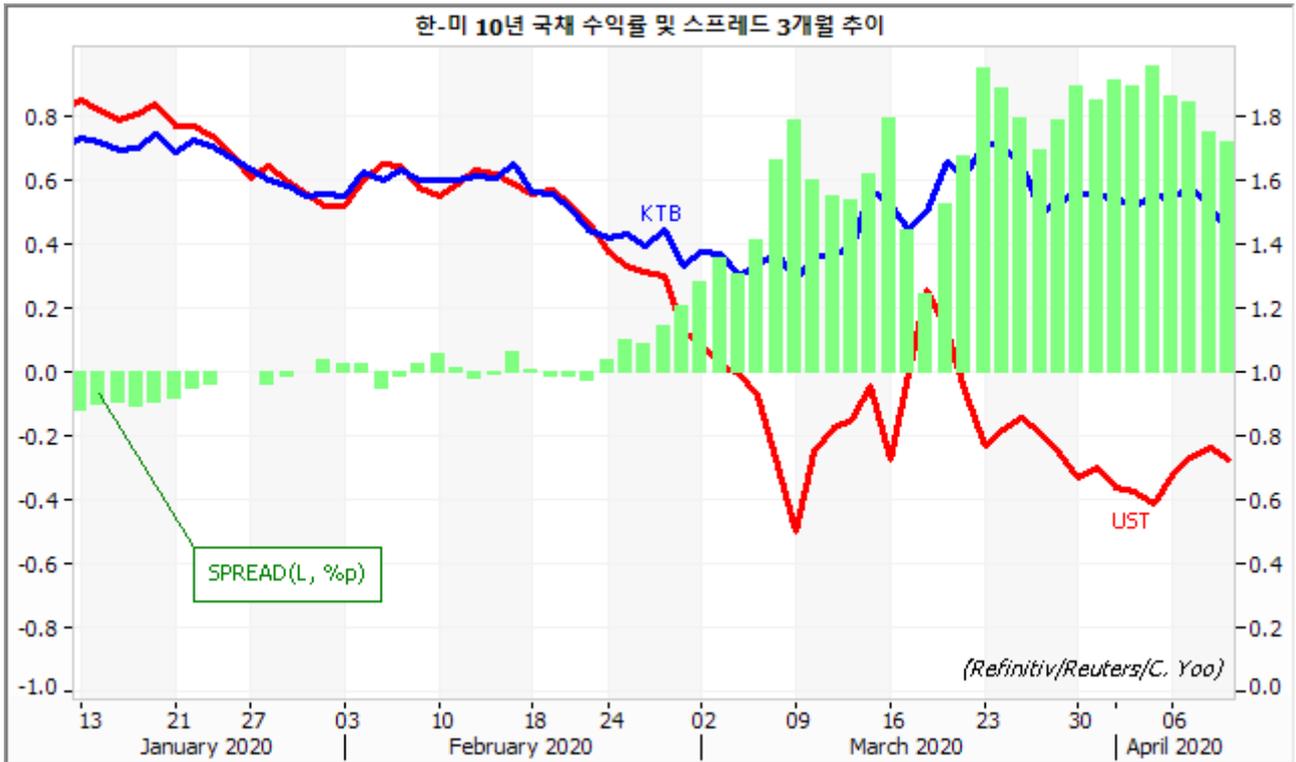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